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 개정판의 타당화: 환상적 성장과 건설적 성장을 중심으로*

신용찬¹ · 김영근^{2†}

¹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석사, ²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Boals와 Schuler(2018)가 수정한 스트레스 관련 성장척도 개정판(Stress Related Growth Scale-Revised: SRGS-R)을 번안하고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RGS-R이 환상적 성장을 덜 보고하는지 기존 외상 후 성장 척도와 비교 검증하였다. 먼저,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25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523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3문항의 2요인 구조를 최종 모형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SRGS-R-K는 기존 성장 척도인 K-PTGI-X(52.8%), K-SRGS-R(50.7%)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13.6%)을 보고하였고, 부정적 응답이 PTSD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SRGS-R-K, K-PTGI-X, SRGS-R-K는 모두 수용 가능한 타당도를 보였으나 SRGS-R-K는 불안, 타인비난, 파국화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SRGS-R이 K-PTGI-X와 K-SRGS-R과 질적으로 다른 것을 측정하며, 기존 척도들이 성장을 과대보고 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 개정판이 기존의 척도에 비해 환상적 성장의 영향을 줄이고 건설적인 외상 후 성장을 보다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외상 후 성장의 다면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과 동시에 건설적인 외상 후 성장의 측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외상 후 성장, 환상적 성장, 건설적 성장, 척도 타당화, SRGS-R-K

* 본 논문은 2019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영근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Tel: 055-320-4024 / E-mail: ykkim@inje.ac.kr

서론

사고, 자연재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대인관계 파탄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여러 위협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 24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역학 조사에서는 70.4%가 평생 1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jet et al., 2016). 외상 사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와 깊은 관련이 있고 개인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응적 영향을 일으킨다(권석만, 2014; Benjet et al., 2016). 국내에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포항 지진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러 사건으로 외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2001년 PTSD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외상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외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이하 PTG)에 대한 연구로, 미국의 동향 연구(Webber et al., 2017)와 같은 범주로 비교했을 때 0.9%에 대비 34.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해 PTG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김정란, 장유정, 조향, 2019).

Tedeschi와 Calhoun(1996)은 외상 경험 이후 이전과 다른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해 삶의 위기 경험에서 비롯되는 성장 경험을 일컫는 PTG를 제안하였다. PTG는 ‘더 취약하지만, 더 강한 자기 인식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삶의 철학적 변화’라는 3가지 차원으로(Calhoun et al., 2000), 긍정 심리학과 건강생성이론(salutogenic models)의 관점에서 강점과 회복력을 탐구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Dekel, Ein-Dor, & Solomon, 2012; Mittelmark et al., 2017; Richardson, 2002). Tedeschi와 Calhoun(2004)이 제시한 PTG모델에 따르면, 외상 경험 이후 도식과 신념이 붕괴되고, 원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 간의 불일치로 인해 불수의적으로 외상 사

건과 관련된 반복적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Michl et al., 2013). 이는 극심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불러일으키지만, 역설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높여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Cann et al., 2011). 이를 통해 개인은 손상된 신념을 회복하고 도식을 수정해나가며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녕감, 적응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Calhoun et al., 2010). 이때, 이러한 과정이 경험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선 여러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과 성장이 관련이 있으며,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Zoellner & Maercker, 2006). 또한, 고통과 성장의 관계와 성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Shakespeare-Finch & Lurie-Beck, 2014). 하지만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명확한 근거나 논의가 부족함에도 많은 연구는 PTG의 적응적인 의미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국내 연구들 역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채 다양한 개인 내적 변인들을 탐색하고 밝혀왔다(김정란 외, 2019; Shakespeare-Finch & Lurie-Beck, 2014; Zoellner & Maerck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의되어왔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PTG와 관련된 논란 중 하나는 고통 이후의 적응적인 기능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부족이다(Frazier et al., 2009). PTG가 개인의 성장 및 적응과 관련이 있다면 불일치의 해소로 고통 수준이 감소하고 적응적 기능은 증가해야 한다(Boals & Schuler, 2018; Michl et al., 2013). 일부 연구들은 PTG가 개인의 행복 및 안녕감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지만(송승훈 외, 2009; 송현, 이영순, 2017; 임선영, 2013), 또 다른 연구들은 PTG가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감소 또는 적응적인 기능들과 관련이 없으며 오

히려 높은 수준의 고통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Boals & Schuler, 2018; Dekel et al., 2012; Frazier et al., 2009). 국외 77개의 문헌을 대상으로 PTG와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에서는 PTG가 PTSD의 침습적 사고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지만, 성장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외상 이전의 기능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Calhoun & Tedeschi, 2006).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PTG 연구들에서 사용된 성장을 측정하는 방식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이양자, 정남운, 2008; Frazier et al., 2009).

성장에 대한 측정은 국내외에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이하 PTGI)와 스트레스 관련 성장척도(Stress Related Growth Scale: 이하 SRG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때, PTGI와 SRGS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건설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장으로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Boals & Schuler, 2018). Maercker와 Zoellner(2004)의 야누스의 얼굴 모델(Janus face model)에서는 실제 성장을 반영하는 건설적인 측면(constructive side)과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 증진적 환상(self-enhancing illusions)을 만드는 환상적 측면(illusory side)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자기 증진적 환상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서적 고통을 진정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이때 성장은 성공적인 대처의 결과이기보다 대처전략으로 볼 수 있다(Dekel et al., 2012). 외상 경험자들은 인지적으로 고통에 적응하고자 왜곡된 자기 인식과 과장된 개인적 통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외상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자 노력하는 대처와

관련되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Frazier et al., 2009), 스스로 성장했다고 착각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성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Maercker & Zoellner, 2004). Dekel 등(2012)의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PTSD가 그대로 유지될 때 PTG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였고 성장이 우울, 불안의 감소를 촉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에 대해 고통이 지속될 때 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추측하였다(Zoellner & Maercker, 2006). 이처럼 건설적인 성장은 고통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환상적 성장(illusory growth)은 고통 및 대처와 관련이 있다(McFarland & Alvaro, 2000).

위와 같은 문제점은 PTGI와 SRGS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 먼저, PTGI는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생존자가 거의 없기에, 외상 사건에 대해 느끼고 알아차린 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Calhoun & Tedeschi, 2004). PTGI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한 지각된 긍정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3가지 차원의 변화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edeschi와 Calhoun(1996)은 PTGI가 외상 이후 투쟁에서 비롯된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긍정적 편향으로 인한 환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외상 이후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 시간의 경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성장의 측면이 달라질 수 있기에 건설적, 환상적 성장에 대한 논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Calhoun & Tedeschi, 2004). 하지만, 외상 생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환상적 성장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고 있으며(Dekel et al., 2012), 상담 장면에서 외상 생존자의 긍정적인 재해석 대처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건설적인 PTG로 나아가기 위해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개인 내적 변인들과 PTG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에서는 환상적 성장과 건설적인 성장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Boals, Bedford, & Callahan, 2019). 한편, SRGS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각된 긍정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의 향상, 개인내적 자원의 향상, 새롭거나 개선된 대처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하지만, SRGS는 타당화 과정에서 긍정적 재해석 대처와 성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고, 외상 경험 초기에 실제 성장보다 긍정적 재해석 대처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이 나타났다(Park, Cohen, & Murch, 1996). Coyne과 Tennen(2010)은 이처럼 PTG 측정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방법으로 연구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PTGI와 SRGS가 환상적 성장을 혼합 보고하는 이유는 긍정적인 변화의 보고만을 허용하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환상적 성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이양자, 정남운, 2008; Boals & Schuler, 2018; Lechner & Antoni, 2004). PTGI는 개발과정에서 목인을 통제하기 위해 부정적인 방향의 문항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환상적 성장의 자기 긍정적 재해석 대처의 특성을 미루어볼 때 건설적 성장뿐만 아니라 환상적 성장의 보고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PTGI와 SRGS의 Likert 척도의 범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척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없다. PTGI를 통해 측정된 지각된 성장과 성장의 5가지 세부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Frazier et al., 2009), 표본 중 PTGI를 통해 보고된 지각된 성장의 25% 정도 실제 성장을 반영했지만, 일부는 고통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PTGI의 문항을 부정

적 변화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하여 PTG를 측정했으나 이 역시 부정적인 변화로 편향되어 외상 후 감가상각(posttraumatic depreciation)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하지 않았다(Baker et al., 2008).

이처럼 PTGI에서 긍정적인 문항에 응답했음에도 실제로는 부적응적인 영향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Boals와 Schuler(2018)는 기존 구성을 변화시킨 척도를 제안하였다. 먼저, 그들은 실제 성장과 환상적 성장을 구분하기 위해 긍정적 변화 또는 부정적 변화에 편향하기보다 문항을 중립적으로 바꾸어 SRGS의 척도를 개정하였다. 또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 범주만으로 척도를 구성하지 않고, 두 가지를 Likert 척도 내에 포함하여 긍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만을 보고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 개정판(SRGS-Revised: 이하 SRGS-R)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문항의 중립적 구성과 양극성 Likert 척도의 사용이 환상적 성장의 보고를 감소시키고 기존의 척도와 다른 부분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SRGS-R이 환상적 성장을 완벽하게 제한하였다거나 환상적 성장에 대해 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척도들에 제기되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된 결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향후 PTG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SRGS-R이 환상적 성장을 줄이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RGS-R의 변안 및 타당화 과정을 진행하고, 기존 국내 변안 및 타당화되었던 척도들과 비교를 통해 환상적 성장을 줄인 PTG척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Boals와 Schuler(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환상적 성장을 줄이고 개선된 PTG 측정을 지지한 가

설들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Boals와 Schuler(2018)은 PTG측정에 있어 SRGS-R이 개선된 구성타당도를 가지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SRGS와 PTGI보다 더 낮은 PTG를 보고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만약, SRGS와 PTGI가 환상적 성장과 건설적 성장을 혼합보고 한다면, 환상적 성장을 줄이기 위해 변화시킨 SRGS-R은 전반적으로 성장했다는 응답이 적을 것이라 보았다. 그들은 세 가지 척도의 평균 점수를 직접비교할 수 없어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SRGS-R, SRGS, PTGI 각 척도 평균 평점을 긍정적 반응의 중간점 이상을 1로, 이하를 0으로 더미 코딩하여 카이제곱분석을 통해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는 세 가지 척도가 일관성이 있고, 3점 Likert 척도인 SRGS를 고려할 때 성장을 경험하지 않음은 0으로, 성장을 경험함은 1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중간점 이상, 이하를 각각 0으로 처리했을 때에도 결과는 동일했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하지만 낮은 수준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SRGS와 PTGI에 비해 SRGS-R은 정신건강관련 요인과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들은 환상적 성장이 대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PTGI, SRGS는 모든 형태의 대처와 관련이 나타나지만, SRGS-R은 더 건강한 형태의 대처와 관련이 나타날 것이라 가설을 세웠다. 다음으로 Boals와 Schuler(2018)은 세 번째 가설에서 건설적 성장은 문제 중심적 대처와 관련이 높지만, 부정적인 정서, 회피중심적 대처와는 관련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연구 결과 SRGS-R은 건강한 형태의 대처방식과 관련이 높았지만, 일부 정서중심적 대처의 수준과도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SRGS-R이 PTGI, SRGS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중심적 대처보다 긍정적인 정서중심적 대처와 관련이 높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기존의 사용되던 대부분의 정서중심적 대처라는 개념이 정서를 매

개로운 긍정적인 대처 방식의 차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서영주, 김영근, 2018; 최혜연, 민경환, 2003),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정서적 투쟁을 통해 정서를 인식, 처리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성장의 핵심 과정이라는 근거를 통해 주로 사용되는 정서중심 대처척도가 아닌 정서인식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와 관련한 여러 과정에서 가장 밀바탕이 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두 요인은 최근 PTG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에, 건강한 형태의 정서중심 대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외에서 PTGI 및 SRGS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환상적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사용되던 척도들의 환상적 성장의 혼합 보고를 살펴보고 제기되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은 국내 PTG 분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외에서만 이루어지던 환상적 성장에 대한 혼합된 PTG를 국내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SRGS-R의 번안 및 타당화 과정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번안된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 개정판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둘째, 번안된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 개정판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한가? 다음으로, 연구 문제를 통해 검증된 환상적 성장을 줄인 PTG 척도를 통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상적 성장을 줄이기 위해 변화시킨 PTG 척도는 기존 PTG척도보다 전반적으로 성장했다는 응답이 적을 것이다. 둘째, 환상적 성장을 줄이기 위해 변화시킨 PTG척도는 기존 PTG척도보다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과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셋째, 환상적 성장을 줄이기 위해 변화시킨 PTG 척도는 건강한 형태의 대처와 긍정적인 관련을 가질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외상 경험이 있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표본 1과 표본 2로 나누어 수집했으며, 표본 1은 SRGS-R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예비조사, 표본 2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본 조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요인분석을 위해 최소 250명의 사례가 필요하다는 근거(Tabachnick & Fidell, 2001; Heppner et al., 2017에서 재인용)에 따라 2020년 3월 11일부터 2020년 3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 211명, 오프라인 설문 50명으로 총 261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연구의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구글폼을 활용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한 후,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면 설문을 할 수 없거나, 온라인 설문을 선택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중, 분석에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결측값이 있는 설문,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또는 외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설문 총 8부를 제외하고 총 253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76명(30%), 여자 177명(70%)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90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50대 65명(25.7%), 40대 64명(25.3%), 30대 25명(9.9%), 60대 9명(3.6%)이었다. 거주지역은 부산 89명(35.2%), 경남 86명(34.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은 사고 및 상해가 43명(1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31명(12.3%), 대인관계 파탄이 25명(9.9%) 순이었다. 외상을 경험한 시기는 3~10년 전이 8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0~20년 전이 59명(23.3%), 20년 전이 54명(21.3%)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이내가 3명(1.2%)으로 가장 적었다. 외상을 경험한 당시의 고통 수준은 ‘매우 고통스러웠다’가 108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고통 수준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가 61명(24.1%)으로 가장 많았다.

본 조사는 약 130만 명의 패널을 보유한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2020년 4월 2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2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60명(49.7%), 여자 263명(50.3%)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부터 99세까지로 고르게 분포(19.5%~21.6%)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169명(32.3%), 경기도 131명(25.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이 93명(1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재정적 어려움이 73명(14.0%), 배신 충격이 50명(9.6%) 순이었다. 외상을 경험한 시기는 3~10년 전이 159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0~20년 전이 139명(26.6%),

20년 전 이상이 81명(15.5%)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이내가 4명(0.8%)으로 가장 적었다. 외상을 경험한 당시의 고통 수준은 ‘매우 고통스러웠다’가 277명(53.0%)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고통 수준은 ‘매우 고통스럽다’가 145명(27.7%)으로 가장 많았다.

척도 번역 과정

척도를 사용하기 이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SRGS-R을 번역하였다. SRGS-R은 Park 등(1996)이 개발한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SRGS)의 단축형(Cohen, Hettler, & Pane, 1998)을 Boals와 Schuler(2018)가 문항을 중립적인 표현으로 재구성하고, Likert 척도를 양극성으로 바꾼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먼저, 각 척도의 번역 및 타당화에 대해 SRGS-R을 제 1저자인 Adirel Boals에게 2019년 10월 5일에 허가를 받았다. SRGS-R을 한국어로 보다 쉽게 번역하기 위해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며, 다년간 번역 및 통역 경험이 있는 이중언어자 2명이 번역 과정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A는 심리학 학사, 교육학(상담전공) 석사, 교육학(상담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에서 9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다. 참여자 B는 심리학 학사, 예방과학 및 상담심리학 석사, 상담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에서 18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다. 먼저, 참여자 A에게 SRGS-R의 한국어 번안을 부탁하였다. 번역본이 완성된 후, 번역본과 원척도의 의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육상담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때 원문은 모든 문항이 ‘I experienced a change...’로 이루어져 있지만, 번역본은 문장이 ‘내가’, ‘나’, ‘나의’로 시작하거나 없는 문항이 혼합되어 있어, 의미전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통일성을 위해 모든 문항에서 ‘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후, 참여자 B에게 역번역본을 부탁하여 역번역본을 만들었다. 완성된 역번역본과 원척도, 번역본을 상담심리학 교수 1인과 연구자가 논의를 거쳐 각 자료의 의미가 동등한지 확인하고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무에 따라 원문과 역번역본의 의미에 차이가 있어 문장의 시작부분을 모두 ‘나는’으로 통일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기 위해 현대문학 교수 1인에게 검토받고, 상담심리학 교수 1인, 상담심리치료학 박사 수료생 1인, 석사 졸업생 1인, 석사과정생 4인과 연구자가 원본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수준에서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고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대문학 교수에게 3번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는’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 ‘나도 괜찮다는’으로,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4번에서 ‘정도에’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 15번의 ‘믿음에 변화를’이 명확하지 않아 ‘믿음이 생기는 변화를’로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이후, 3번의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정도에’라는 표현을 제외할 경우 긍정적으로 편향될 수 있으므로 ‘정도의’로, 15번의 ‘믿음이 생기는 변화를’을 ‘믿음의 변화를’로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번역된 한국판 SRGS-R의 예비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은 7점 Likert 척도(-3: 매우 부정적인 변화, 0: 변화 없음, +3: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Boals와 Schuler (201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h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의 내적합치도는 .92, 본 조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외상 경험

외상 사건 경험의 유무를 알기 위해 송승훈(2007)이 제작하고 신선영(2009)이 보완한 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외상 사건 목록 질문지는 16가지의 외상 사건(예, 사고 및 상해, 적응의 어려움, 대인관계 파탄) 가운데 응답자가 경험한 외상 사건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후, 응답한 외상 사건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하나의 사건을 선택하여 그 사건을 ‘외상 사건’으로 정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외상 사건으로 정의한 사건의 발생 시기, 경험 당시의 고통 수준 및 현재 고통 수준을 7점 Likert 척도(1: 전혀 고통스럽지 않음, 7: 매우 고통스러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관련 성장

스트레스 관련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Park 등(1996)이 개발한 원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를 권선중, 김교현(2007)이 번역 및 타당화한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The Korean version of Stress Related Growth Scale-Revised: K-SRGS-R)를 사용하였다. K-SRGS-R은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은 3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3: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선중과 김교현(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자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 등(2009)이 번역 및 타당화를 진행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 PTG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척도이다. 이와 함께, 더욱 명확한 비교를 위해 Tedeschi 등(2017)이 영적 변화 요인을 영적-실존적 변화로 확장하고 신용찬(2020)이 번안 및 타당화하여 진행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 확장판(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Expanded: K-PTGI-X)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와 삶에 대한 지각의 변화 7문항(예: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4문항(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영적-실존적 변화 3문항(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나의 느낌이 더욱 커졌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경험하지 못함, 6=매우 많이 경험)로 구성되어 있다. K-PTGI는 송승훈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K-PTGI-X는 Tedeschi 등(2017)의 연구에서 미국, 일본, 터키에서 .95~.9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등(2013b)이 번역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Korean: K-ER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침습적 반추 10문항(예,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그것을 멈출 수 없다)과 의도적 반추 10문항(예, 나는 그 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하지 않았다, 4점: 자주 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현의 등(2013b)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모두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

.95, 의도적 반추 .92로 나타났다.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 (1995)이 개발하고 이수정, 이훈구(1997)가 번역 및 타당화한 특질 상위 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에 대한 주의 5문항, 정서 인식의 명확성 11문항, 정서 개선에 대한 기대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인식의 명확성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수정,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 Kraaija와 Spinhoven(2001)이 개발한 척도를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2013a)이 번역 및 타당화한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The Korean version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K-CERQ)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가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수용, 해결중심사고, 균형 있게 바라보기, 긍정적재초점, 긍정적 재평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 5: 거의 언제나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현의 등(2013a)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자기비난 .83, 파국화 .79, 타인비난 .87, 반추 .76, 수용 .68, 균형 있게 바라보기 .63, 긍정적재초점 .89, 해결중심사고 .84, 긍정적 재평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 .80, 파국화 .81, 타인비난 .86, 반추 .73, 수용 .68, 균형 있게 바라보기 .69, 긍정적재초점 .84, 해결중심사고 .83, 긍정적 재평가 .83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관련 요인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Boals와 Schuler(2018)의 연구와 같이 Helgeson 등(2006)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효과 크기를 확인한 정신건강 측정치인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정적 정서(positive well-being), 부적 정서(global distress),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PTSD symptoms),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우울 및 불안

본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21(Korean versi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 K-DASS-21)을 사용하였다. K-DASS-21은 Lovibond와 Lovibond(1995)가 개발한 DASS를 Antony 등(1998)이 단축형인 DASS-21로 타당화하고, DASS-21을 차은석, 박미연, 김가애(2008)가 번역 및 타당화한 도구로 우울 7문항, 불안 7문항 및 스트레스 7문항의 21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7문항과 불안 7문항을 사용하였다. K-DASS-21의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전혀 해당되지 않음, 4: 매우 많이 또는 거의 대부분 해당됨)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차은석 등 (2008)의 연구에서 DASS-21의 내적합치도는 우울 .88, 불안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우울 .92, 불안 .92로 나타났다.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하고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번역 및 타당화하고 박홍석과 이정미(2016)가 재타당화한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정적정서

10문항과 부정정서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홍석과 이정미(201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정적 정서 .86, 부정 정서가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89, 부정 정서 .91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Wilner와 Alvarez(1979)가 개발한 척도를 Weiss와 Marmar(1997)가 수정하고 은현정 등(2005)이 번역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충격정도 개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 IES-R-K)을 사용하였다. IES-R-K는 총 22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자주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 과각성 6문항, 회피 6문항, 침습 5문항,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리증상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PTSD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현정 등(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와 Hillier(1979)가 개발하고 박종익, 김영주와 조맹제(2012)가 번역 및 타당화한 한국판 일반건강 질문지 축약형(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12)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박종익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AMOS 21.0, R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절차를 사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예비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번역된 SRGS-R와 PTGI-X의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각 문항-총점 간 상관, Ch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부적절한 문항 및 내적합치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SRGS-R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이후, 요인 추출은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회전은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법인 프로맥스(promax)로 분석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공통성 .30과 요인부하량 .40 이상인지, 요인부하량이 두 요인 이상에 .30 이상이거나 차이가 .20을 넘지 않는 교차 부하인지 검토하였다(노경섭, 2014; 백영민, 2015; 성태제, 2019; Hair et al., 2010; 이시은, 2019에서 재인용). 이때, 구조 행렬은 PTG라는 구인으로 상관이 묶여있기 때문에 패턴 행렬을 요인 구분의 기준으로 보았다. 또한, 이론적 토대가 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요인별 최소 문항의 수가 3문항 이상이 적절하다는 근거로 각 요인별 문항 수를 검토하였다(MacCallum et al., 1999). 셋째, 본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형 적합도를 TLI(Tucker-Lewis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때, TLI,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 RMSEA는 .10 미만일 때 나쁜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

로 볼 수 있다(우종필, 2014; Browne & Cudeck, 1993; Steiger, 1990). 다섯째, 집중타당도, 동시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와 함께 같은 성장을 측정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되는 K-PTGI-X, K-SRGS-R와 PTG 성장모델의 핵심요인인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와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최소기준으로 개념 신뢰도는 .7 이상, 평균분산추출은 .5 이상일 때 타당한 것으로 본다(우종필, 2014). 여섯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oals와 Schuler(2018)의 연구의 검증 과정과 같이 가설 1은 카이제곱 검증, 가설 2는 정신건강요인, 가설 3은 대처와 관련된 성장관련 요인과의 상관분석 및 상관계수 차이검증을 통해 가설을 확인하였다.

결 과

예비조사 SRGS-R 문항분석

예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SRGS-R의 부적절한 문항 및 내적합치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각 문항-총점간 상관, 내적합치도를 확인하였다(Table 1). 평균은 0.12-1.29, 표준 편차는 1.23-1.69, 왜도 및 첨도는 1을 넘지 않아 문항의 분포와 정규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rinch, 1996). 또한, 각 문항-총점간 상관이 .56-.81로 양호하며, 전체 내적합치도가 .92,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 값이 .92로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nal Consistency of SRGS-R

| item | M | SD | Skewness | Kurtosis | total correlation | Chronbach's α |
|------|------|------|----------|----------|-------------------|----------------------|
| 1 | 0.12 | 1.69 | 0.05 | -0.94 | .56 | .92 |
| 2 | 0.62 | 1.55 | -0.22 | -0.75 | .63 | .92 |
| 3 | 1.04 | 1.33 | -0.37 | -0.08 | .74 | .92 |
| 4 | 0.88 | 1.44 | -0.52 | -0.16 | .75 | .92 |
| 5 | 1.12 | 1.45 | -0.68 | 0.08 | .76 | .92 |
| 6 | 1.29 | 1.37 | -0.70 | 0.21 | .75 | .92 |
| 7 | 1.21 | 1.34 | -0.69 | 0.60 | .69 | .92 |
| 8 | 0.75 | 1.60 | -0.47 | -0.51 | .81 | .92 |
| 9 | 1.00 | 1.27 | -0.21 | -0.37 | .71 | .92 |
| 10 | 0.91 | 1.33 | 0.08 | -.28 | .72 | .92 |
| 11 | 1.21 | 1.36 | -0.75 | .41 | .77 | .92 |
| 12 | 0.76 | 1.23 | -0.04 | .07 | .66 | .92 |
| 13 | 0.80 | 1.35 | -0.71 | .77 | .61 | .92 |
| 14 | 0.92 | 1.27 | -0.30 | .10 | .68 | .92 |
| 15 | 1.00 | 1.31 | -0.56 | .31 | .68 | .92 |

판단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SRGS-R 탐색적 요인분석

SGRS-R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 $\chi^2=1865.13(p<.001)$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Kaiser 기준(Kaiser, 1960)에 따라 고유값은 1개 7.448(설명 분산: 49.65%), 2개 1.18

(설명 분산: 7.84%)로 1보다 큰 요인이 2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리 도표에서 고유값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지점이 2개의 요인이었기에 2개 요인의 전후를 고려하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서원진 외, 2018; Hayton, Allen, & Scarpello, 2004).

다음으로, 요인수를 단일 요인과 2개의 요인으로 고정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 요인 구조는 1번, 2번, 13번의 공통성이 .30 미만이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제거하자 나머지 문항들은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2-factor(change 8 and 15) Model

| | items | factor loading | community |
|-----------------------------------|---|----------------|-----------|
| enhanced personal resources |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839 | .608 |
| | 6. 나는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715 | .602 |
| | 5.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668 | .590 |
| | 3. 나는 타인에게 인생에 대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칠 게 있다는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635 | .546 |
| | 2. 나는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느낌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607 | .335 |
| | 14. 나는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420 | .418 |
| | 8. 나는 자신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285 | .553 |
| enhanced social resources | 10. 나는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881 | .651 |
| |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진솔하게 의사소통하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810 | .669 |
| |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694 | .520 |
| |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581 | .470 |
| | 12. 나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갈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429 | .411 |
| | 15.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생각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 .457 | .191 |
| | | | .380 |

모두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요인 구조는 1번(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13번(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였다)의 공통성이 .40 미만이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제거하자 나머지 문항들은 요인분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나누어진 요인은 Park 등(1996)이 SRGS 개발 과정에서 중심으로 두었던 3가지 요인 중 1요인을 ‘개인내적 자원의 향상(enhanced personal resources)’, 2요인을 ‘사회적 자원의 향상(enhanced social resources)’으로 해석 가능하였다. 다만, 1요인의 15번 문항(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과 2요인의 8번 문항(나는 자신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의 경우 각 요인의 의미에 따라 문항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단일 요인, 2요인, 8번과 15번의 위치를 바꾼 2요인 모형(Table 2)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본조사 SRGS-R 확인적 요인분석

본조사의 SRGS-R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이때, Model 2와 Model 3 중 더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ECVI(Expected Cross Validation Index)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AIC와 ECVI 모두 값이 작을수록 간명한 모형임을 말해준다(강현철, 2013). 그 결과, 적합도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나 8번과 15번의 위치를 바꾼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2-factor(change 8 and 15) Model

| factor | items | β | S.E. | CR | AVE | CR | Cronbach`s |
|-----------------------------|-------|---------|------|----------|------|------|------------|
| enhanced personal resources | 4 | .761 | .059 | 17.61*** | .537 | .890 | .888 |
| | 6 | .762 | .062 | 17.64*** | | | |
| | 5 | .758 | .060 | 17.52*** | | | |
| | 3 | .754 | .062 | 17.42*** | | | |
| | 2 | .752 | - | - | | | |
| | 14 | .620 | .056 | 14.06*** | | | |
| | 8 | .711 | .067 | 16.32*** | | | |
| enhanced social resources | 10 | .746 | .062 | 15.92*** | .514 | .863 | .862 |
| | 11 | .770 | .066 | 16.41*** | | | |
| | 9 | .724 | .061 | 15.46*** | | | |
| | 7 | .680 | .065 | 14.55*** | | | |
| | 12 | .708 | - | - | | | |
| | 15 | .667 | .068 | 14.28*** | | | |

*** $p < .001$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it of SRGS-R

| | χ^2 | df | TLI | CFI | RMSEA | AIC | ECVI |
|--|----------|----|------|------|-------|---------|------|
| Model 1: 1 factor | 286.08 | 54 | .911 | .927 | .091 | 334.083 | .640 |
| Model 2: 2 factor | 263.80 | 64 | .932 | .944 | .077 | 317.801 | .609 |
| Model 3: 2 factor (change 8 and 15) | 263.30 | 64 | .932 | .944 | .077 | 317.300 | .608 |

최종 모형의 타당도

SRGS-R의 요인별 CR, AVE값을 확인한 결과 (Table 3), CR값과 AVE값 모두 최소 기준을 만족해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우종필, 2014). 다음으로, 동시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SRGS-R의 총점, 각 하위요인과 K-PTGI-X, K-SRGS-R,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SRGS-R-K의 총점과 하위요인은 K-PTGI-X($r=.65, p<.001$), K-SRGS-R($r=.58,$

$p<.001$), 의도적 반추($r=.40,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SRGS-R-K의 부정적인 응답이 PTSD의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인 응답의 총합의 절대값이 PTSD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173, p<.001$)을 보여 동시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변별타당도 역시 SRGS-R와 각 하위요인은 침습적 반추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the SRGS-R, K-PTGI-X, K-SRGS-R, IR, DR

| | 1 | 2 | 3 | 4 | 5 | 6 | 7 |
|--------------|--------|--------|--------|--------|--------|--------|-------|
| SRGS-R-K | - | | | | | | |
| SRGS-R-K EPR | .96*** | - | | | | | |
| SRGS-R-K ESR | .93*** | .79*** | - | | | | |
| K-PTGI-X | .65*** | .60*** | .63*** | - | | | |
| K-SRGS-R | .58*** | .56*** | .54*** | .76*** | - | | |
| IR | .02 | .01 | .03 | .06 | -.02 | - | |
| DR | .40*** | .38*** | .36*** | .41*** | .35*** | .46*** | - |
| M | 5.60 | 3.56 | 2.44 | 47.22 | 56.67 | 25.33 | 26.09 |
| SD | 11.78 | 7.36 | 5.90 | 15.08 | 11.56 | 7.55 | 6.61 |

EPR: Enhanced Personal Resources, ESR: Enhanced Social Resources, IR: Intrusive Rumination, DR: Deliberate Rumination, *** $p < .001$

개정판(Stress Related Growth Scale-Revised Korean Version)의 문항을 확정지었다.

최종 모형을 통한 SRSG-R-K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RGS-R-K, K-PTGI-X, K-SRGS-R에서 긍정적인 성장의 평균을 구한 후, 중간점을 기준으로 참여자의 비율을 나누어 성장 수준을 확인하였다 (Table 6). 분석 결과, 카이제곱 검정에서 $\chi^2(df=2, N=523, p<.001)=193.24$ 로 참여자의 성장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점을 기준으로 SRGS-R-K는 상위 13.6%, 하위 86.4%로 나타났다. 반면, K-PTGI-X는 상위 52.8%, 하위 47.2%이며, K-SRGS-R은 상위 50.7%, 하위 49.3%로 SRGS-R-K와 성장 응답 비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 SRGS-R-K의 하위 86.4% 중 평균이 음수로 나타난 참여자는 25.2%로 해당 참여자를 제외하면 상위 13.6%, 하위 61.2%로 볼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동일한 대상에게 K-PTGI-X와 K-SRGS-R이 PTG를 과대 보고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RGS-R-K, K-PTGI-X, K-SRGS-R과 정신건강, 성장 관련 요인과의 상관분석 및 Fisher's Z test를 통한 상관계수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Table 7). 검

증 결과, K-PTGI-X와 K-SRGS-R은 긍정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정적인 요인의 감소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PTGI-X는 우울($r=-.13, p<.01$)의 감소와 상관이 있었지만, 오히려 PTSD($r=.12, p<.01$)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K-SRGS-R은 우울($r=-.18, p<.001$), 부정 정서($r=-.10, p<.05$)와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SRGS-R-K는 PTSD를 제외하고 모든 정신 건강관련 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우울($r=-.24, p<.001$), 불안($r=-.13, p<.01$), 부정 정서($r=-.13, p<.01$)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심리적 불편감과 관련된 요인에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건강한 형태의 대처와 긍정적인 관련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SRGS-R-K, K-PTGI-X, K-SRGS-R과 긍정적, 부정적 정서관련 대처와의 관계를 상관분석 및 Fisher's Z 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SRGS-R-K는 K-PTGI-X, K-SRGS-R과 달리 타인 비난($r=-.15, p<.01$), 파국화($r=-.10, p<.05$)와 부적인 상관을 보여 기존의 척도와 비교해 보다 건강한 형태의 대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세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Table 6
Chi-squared test Between the SRGS-R-K, K-PTGI-X, K-SRGS-R

| | Above midpoint(%) | Below midpoint(%) | χ^2 |
|----------|-------------------|-------------------|-----------|
| SRGS-R-K | 13.6 | 86.4 | 193.24*** |
| K-PTGI-X | 52.8 | 47.2 | |
| K-SRGS-R | 50.7 | 49.3 | |

*** $p < .001$

Table 7
Correlations Between the SRGS-R-K, K-PTGI-X, K-SRGS-R, Mental health measures, Emotional Coping

| | M(SD) | SRGS-R-K | K-PTGI-X | K-SRGS-R | SRGS-R-K v K-PTGI-X z | SRGS-R-K v K-SRGS-R z |
|-------------------------------|--------------|----------|----------|----------|--------------------------|--------------------------|
| Mental health measures | | | | | | |
| PTSD | 57.37(19.48) | -.003 | .12** | .04 | 1.98* | 0.74 |
| Depression | 13.19(5.34) | -.24*** | -.13** | -.18*** | 1.82 | 0.74 |
| Anxiety | 12.07(5.11) | -.13** | .01 | -.04 | 2.30* | 1.50 |
| Positive well-being | 28.39(6.88) | .39*** | .51*** | .53*** | 2.44* | 2.84** |
| Global distress | 27.41(8.06) | -.13** | -.07 | -.10* | 0.93 | 0.34 |
| Quality of life | 33.56(6.32) | .31*** | .26*** | .34*** | 0.74 | 0.56 |
| Emotional Coping | | | | | | |
| Emotional Awareness Clarity | 36.83(5.99) | .27*** | .13** | .20*** | 2.40* | 1.25 |
| Acceptance | 10.25(2.11) | .33*** | .30*** | .32*** | 0.52 | 0.11 |
| Refocus on planning | 13.96(2.92) | .39*** | .36*** | .40*** | 0.60 | 0.23 |
| Putting into perspective | 12.72(2.69) | .36*** | .47*** | .48*** | 2.20* | 2.33* |
| Positive refocusing | 11.96(3.15) | .30*** | .45*** | .46*** | 2.83** | 3.04** |
| Positive reappraisal | 12.68(3.23) | .53*** | .56*** | .60*** | 0.76 | 1.71 |
| Self-blame | 11.75(3.24) | .21*** | .21*** | .15** | 0.03 | 0.93 |
| Other-blame | 10.48(3.43) | -.15** | -.02 | -.01 | 2.05* | 2.28* |
| Catastrophizing | 10.52(3.47) | -.10* | -.01 | -.05 | 1.38 | -0.68 |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PTG척도에서 환상적 성장의 보고를 줄이고 건설적인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Boals와 Schuler(2018)가 문항을 독립적으로 바꾸고, 양극성 척도로 구성한 SRGS-R을 번안 및 타당화하여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첫째, SRGS-R-K는 원척도에서 2문항이 제외된

개인내적 자원의 향상 7문항, 사회적 자원의 향상 6문항의 2요인 구조로 분류되었다. Boals와 Schuler(2018)의 연구에서는 SRGS-R에 대한 요인 구조를 확인하지 않아 SRGS의 선행 연구를 살펴 보면, K-SRGS-R은 성숙한 생각(mature thinking), 감정의 성숙(affective growth), 종교적 성숙(religious growth)의 3요인 구조로 나타났고(권선중, 김교현, 2007), 국외의 경우 1요인(Park et al., 1996), 2요인(Li et al., 2018), 3요인(Roesch, Rowley, & Vaugh,

2004)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차이, 연구 대상자의 특성, 외상 사건의 성격 등의 영향일 수 있고(Li et al., 2018), 특히 본 연구에서 단축형 척도의 사용과 응답 범위의 수정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 요인구조가 다르게 구성되었을 수 있다.

문항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현에 따른 표현 효과(wording effects)는 자기보고식 척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Gu, Wen, & Fan, 2015). 문항 표현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현, 혹은 혼합하여 제시하는지에 따라 변별도, 신뢰도에 차이를 보이며(Baker & Ebel, 1982; Schriesheim & Hill, 1981), 척도의 요인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명기, 2020; 이현정, 홍세희, 조기현, 2019). SRGS-R-K의 정방향과 역방향의 7점 Likert 척도 반응범주 구성은 요인구조에 영향을 주어 2요인의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해석적 측면에서 SRGS-R-K의 2요인 구조는 Li 등(2018)의 2요인 구조인 개인 내적 성장(Interpersonal growth), 대인관계적 성장(Intrapersonal growth)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RGS-R-K의 해석적 측면에서 8번(나는 자신감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과 15번(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생각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문항의 위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요인 구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요인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연구 대상에 따라 문항의 표현과 혼합 반응범주가 주된 영향을 미친다면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요인 구조와 SRGS-R-K의 구조 중 경험적, 해석적 측면에서 건설적인 PTG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적절한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단일 요인, 2요인, 8번과 15번의 문항을 바꾼 2요인 구조로 SRGS-R-K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8번

과 15번의 문항을 바꾼 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CR, AVE값을 통한 집중타당도, 다른 요인과의 비교를 통해 동시타당도와 변별타당도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PTGI-X와 K-SRGS-R과 SRGS-R-K는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두 척도가 긍정적 재해석 대처에 가까운 환상적 성장의 보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적응적인 건설적 성장도 함께 보고 하기 때문에(Dekel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삶의 중대한 위기 이후 성장의 측면을 가지는지에 대한 동시타당도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침습적 반추는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도적 반추와는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먼저, 침습적 반추는 PTSD와 관련이 높고 현실과 핵심신념, 도식 간의 불일치로 인한 고통의 증가와 관련이 높아 고통이 감소하고 적응적인 기능이 촉진되는 건설적인 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변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도적 반추는 외상 이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핵심신념과 도식을 재구성하는 자발적인 반추사고로 성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인으로(Tedeschi & Calhoun, 2004), 스스로 통제감을 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는 점으로 볼 때 동시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정적인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된 PTGI는 외상 후 감가상각(posttraumatic depreciation)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aker et al., 2008), 본 연구에서 PTSD와 SRGS-R-K의 문항 중 부정적인 성장에 대한 응답은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시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부정적인 문항의 단극으로 구성된 PTGI가 SRGS-R-K와 비교해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존 척도와 SRGS-R-K가 같은 PTG를 측정하고 있음에도, 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측정하고 있

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oals & Schuler, 2018).

둘째, 번안 및 타당화한 SRGS-R-K가 환상적 성장을 줄이고 건설적인 성장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SRGS-R-K와 K-PTGI-X, K-SRGS-R에서 긍정적인 성장에 대한 응답을 중간 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비율을 살펴보자 SRGS-R-K의 성장 비율이 13.6%인 것에 비해 K-PTGI-X는 52.8%, K-SRGS-R은 50.7%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척도가 같은 Likert 응답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는 K-PTGI-X와 K-SRGS-R이 성장을 과대보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Boals & Schuler, 2018).

한 방향으로 표현된 자기보고식 척도는 반응 편향 중 묵종반응편향(acquiescence response bias)을 일으킬 수 있다. 묵종반응편향은 문항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렇다’로 반응하는 동의(agreement) 묵종과 제시된 문항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acceptance) 묵종으로 나누어진다(Bentler, Jackson, & Messick, 1971). 이는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 한 방향 항목 문항에서 응답 반응의 편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존 PTG척도의 문항들이 환상적 성장의 긍정적 재해석 대처의 영향으로 편향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응 편향을 줄이는 방안 중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모두 포함된 혼합 척도는 한 방향 척도보다 신중한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DeVellis, 2003; 김명기, 2020에서 재인용), 혼합 척도는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응답하는 부주의(inattention), 동의묵종 등의 이유로 편향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oszkowski & Soven, 2010; Van Sonderen, Sanderman, & Coyne, 2013). Barnette(2000)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혼합 척

도가 아닌 SRGS-R-K의 구성과 같은 양방향의 반응범주로 구성된 혼합 반응범주를 통해 편향을 줄일 것을 권장한다. 이를 종합해볼 때, SRGS-R-K는 긍정과 부정 항목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문항 표현과 혼합 반응범주를 통해 묵종반응 편향과 환상적 성장의 보고를 줄이도록 개선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와 정신건강 관련 요인과의 상관 및 상관 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SRGS-R-K는 긍정적 요인과 함께 PTSD를 제외한 부정적 요인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며 SRGS-R-K가 기존 척도보다 건설적인 성장에 대한 개선된 측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SRGS-R과 K-PTGI-X는 SRGS-R-K보다 정적 정서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상관계수 차이검증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K-PTGI-X는 우울의 감소와 관련이 나타나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K-PTGI-X가 PTSD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불안은 기존의 두 척도와 관련이 없었다. 이는 기존 척도를 통한 성장이 적응적, 부적응적 영향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곧 건설적인 성장과 환상적 성장을 혼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한 PTG는 일부 왜곡될 수 있고 희망적 사고, 의미의 왜곡과 같은 어두운 면(Dark side)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울, 불안의 감소를 촉진하지 않아(Brewin, 1997; Maercker & Zoellner, 2004에서 재인용; Dekel et al., 2012; Zoellner & Maercker, 2006), 성장의 과잉보상 행동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기존 척도를 통한 PTG가 고통의 증가와 관련이 나타나(Boals & Schuler, 2018; Dekel et al., 2012) 고통의 결과로서의 성장이 아닌 고통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성장이 혼합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Frazier et al., 2009). 삶의 질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문항을 살펴보면 정적 정서 척도의 문항이 한 달간 느낀 기분을 ‘흥미로웠다’, ‘강인했다’ 등으로 짧은 문장을 통해 기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비해, 삶의 질 척도는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등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항이 이루어져 있어 희망적 사고, 의미의 왜곡으로 인한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환상적 성장의 과잉보상 또는 자기기만적 측면이 자기보고식 척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후 연구에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SRGS-R-K가 건강한 형태의 대처와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와 정서관련대처와의 관련을 살펴본 결과, SRGS-R-K는 모든 정서관련대처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PTGI-X와 K-SRGS-R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요인인 타인비난, 파국화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균형있게 바라보기와 긍정적재초점은 SRGS-R-K에 비해 높아 상관계수 차이검증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있게 바라보기와 긍정적재초점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거나 사건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무관한 긍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두는 사고방식으로 이는 기존 척도가 SRGS-R-K보다 사건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정서에 집중하기보다 외부의 긍정적인 자원에 집중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비난이 모든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과 같이 외상 사건은 객관적인 특성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자원 및 대처방식에 따라 다면적인 구조를 보이고(Calhoun & Tedeschi, 2006),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달라 각각의 전략이

고통이후 성장에 적응적인지, 부적응적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안현의 외, 2013a). 균형 있게 바라보기는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일도 겪는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재초점은 ‘내가 겪은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것을 생각해본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통에 대한 수용보다는 회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두 번째 가설과 같이 균형있게 바라보기와 긍정적 재초점이 과잉보상 행동 또는 자기기만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는 K-PTGI-X, K-SRGS-R을 통해 성장을 보고한 일부 생존자가 외상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고통의 희생자로 끊임없이 외상 사건을 재해석하고 이해하고자 분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이 지속될 때 성장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Dekel et al., 2012; Zoellner & Maercker, 20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통 이후 성장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하위 요인들이 적응적인지, 부적응적인지 척도 간 분석을 통해 건설적인 측면과 자기기만적인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SRGS-R-K는 정서인식명확성과의 상관이 다른 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 비난,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으로 보이는 요인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PTG가 개인의 성장 및 적응을 높이고, 심리적 불편감과 고통의 감소로 이어져 적응적인 기능을 촉진하는 근거로 뒷받침되며(Boals & Schuler, 2018; Frazier et al., 2009), 심리적 불편감과 고통의 감소를 통해 SRGS-R-K가 비록 환상적 성장을 완전히 제외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선된 건설적인 성장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외상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인식하고 정서적 투쟁과정을 거쳐 인지적 추론은

로, 뒤이어 고통에 대한 건설적인 처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PTG 모델과(Tedeschi & Calhoun, 2004), 고통으로 인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고통의 희생자에서 외상 사건을 마주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통합된 자기(self)를 건설적인 성장으로 보는 정서중심의 관점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Fosha, Sigel, & Solomon, 2013; Greenberg & Paivio, 2008).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국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환상적 성장의 개념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자기보고식 측정이 PTG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PTG 연구에서 적응적인 의미의 성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명확히 구분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감소, 자기비난의 증가 등 Boals와 Schuler(2018)의 연구와 일부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 사용된 척도의 차이 등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외에서 PTG의 서로 다른 측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Boals, Bedford, & Callahan, 2019; Boals & Schuler, 2018; Calhoun & Tedeschi, 2004; Coyne & Teenen, 2010)에서, 국외와 다른 한국의 문화 특성이 반영된 환상적 성장의 측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PTG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SRGS-R-K의 번안 및 타당화를 통해 환상적 성장을 줄인 PTG를 측정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Tedeschi 등(2017)의 연구에서 K-PTGI-X의 번안 및 타당화를 통해 영적·실존적 변화 요인에 대한 폭넓은 PTG의 측정이 가능했지만, PTG의 측정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본 연구의 SRGS-R-K는 응답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문항의 중립과 혼합 반응 범주를 통해 더 개선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

다. 이는 SRGS-R이 기존에 사용되던 PTGI나 SRGS보다 낫다는 것이 아닌 환상적 성장과 건설적인 성장을 구분하여 향후 외상 연구의 방향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의 폭을 넓혔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환상적 성장의 보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면적인 외상의 특성을 보다 명료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PTG 연구에서 SRGS-R-K의 혼합반응 범주를 통해 PTG의 적응적인 측면과 함께 부적응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이와 함께 중립 반응 범주를 기준으로 양방향을 구분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방향의 성장과 PTSD의 상관을 확인함으로써 성장의 수준과 PTSD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이외에 상담 장면에서 외상 경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SRGS-R-K를 통해 내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상담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횡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외상 유형에 구분을 두지 않았고,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의 유형, 개인의 특성 및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PTG의 양상을 포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상 유형을 단일화하고, PTG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 요인을 통제된 사전 사후 설계와 같은 종단적 방법으로 PTG의 측정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환상적 성장을 줄이기 위해 SRGS-R-K를 번안 및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SRGS-R-K는 환상적 성장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며, 참여자들 스스로 외상 사건으로 인한 건설적인 성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기억과 응답의 왜곡을 배제

할 수 없다. SRGS-R-K는 이러한 편향과 부정적 성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맥락이 포함되지 않은 자기보고식 설문에 외상으로 인한 고통에 회피하는 개인의 응답은 회복탄력성으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Brooks, 2018; Connor & Davidson, 2003).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환상적 성장이라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함께 더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건설적인 성장을 측정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SRGS-R-K와 K-PTGI-X, K-SRGS-R의 척도간 질적인 차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은 영향을 주거나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해 이후 연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과 달리 정적 정서, 균형 있게 바라보기와 긍정적재초점이 SRSG-R-K보다 K-PTGI-X, K-SRGS-R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가 적응적인지, 부적응적인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국외에서는 건설적 성장과 환상적 성장을 구분하기 위해 처치가 PTG, 대처의 향상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Pat-Horenczyk et al., 2015), 외상성 사고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삽화를 접하고 그에 대처하는 건설적 성장 또는 환상적 성장 유형 간의 차이를 일반인이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Orile, Harrison, & Taku, 2019), 올림픽 수영 선수들의 경험 속에서 드러난 환상적 성장과 건설적 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Howells & Fletcher, 2016) 등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통한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내의 실정에 맞춘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5(2), 653-668.
- [Kang, H. C. (2013). Discussions on the suitable interpretation of model fit indices and the strategies to fit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53-668.]
- 권석만 (2014). 이상심리학의 기초: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Kwon, S. M. (2014). *Basics of abnormal psychology: understanding abnormal behavior and mental disorder*. Seoul: Hakjisa.]
- 권선중, 김교헌 (2007). 한국판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K-SRGS-R)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542-543.
- [Kwon, S. J., & Kim, K. H. (200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tress Related Growth Scale-Revised. *Conference Material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1), 542-543.]
- 김명기 (2020). 문항의 표현효과가 심리검사의 요인 구조 및 문항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 [Kim, M. G. (2020). *The impact of item wording effects on factor structure and item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tests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 김정란, 장유정, 조 항 (2019).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트라우마(trauma) 연구동향(2001-2017). *상담학연구*, 20(1), 67-91.
- [Kim, J. R., Jang, Y. J., & Jo, H. (2019). Research Trends in Trauma in Counseling and

- Psychotherapy(2001-2017).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 67-91.]
- 노경섭 (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 [Noh, K. S. (2014). *Properly known papers statistical analysis: SPSS & AMOS 21*. Seoul: Hanbit Academy.]
- 박종익, 김영주, 조맹제 (2012). 한국판 일반 건강 설문지의 요인 구조. *신경정신의학*, 51(4), 178-184.
- [Park, J. I., Kim, Y. J., & Cho, M. J. (2012). Factor structure of the 12-item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in the Korean general adult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1(4), 178-184.]
- 박홍석, 이정미 (2016). 정적정서 부적정서 척도 (PAN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617-641.
- [Park, H. S., & Lee, J. M. (2016). A validation study of Korean version of PANAS-Revised.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4), 617-641.]
- 백영민 (2015). R을 이용한 사회과학데이터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aek, Y. M. (2015). *Social science data analysis using R*. Seoul: Communication Books.]
- 서영주, 김영근 (2018). 대인관계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신화와 정서기반대처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775-798.
- [Seo, Y. J., & Kim, Y. K.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trauma and post-traumatic growth: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ization and emotion-based cop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775-798.]
-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 [Seo, W. J., Lee, S. M., Kim, M. R. H., & Kim, J. J. (2018).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for methodological improvem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29(1), 177-193.]
- 성태제 (2019).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Seong, T. J. (2019). *An easy statistical analysis*. Seoul: Hakjisa.]
- 송승훈 (2007).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K-PTGI)의 신뢰도와 타당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Song, S. H.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geon, Korea.]
-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Song, S. H., Lee, H. S., Park, J. H., & Kim, K. H. (200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1), 193-214.]
- 송현, 이영순 (2017). 외상 후 성장 과정의 구조적 관계 분석. *재활심리연구*, 24(4), 573-591.
- [Song, H., & Lee, Y. S. (2017). A analysis of posttraumatic growth processes structural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4(4), 573-591.]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 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Shin, S. Y. (2009). *The effect of meaning in life and*

- social support on posttraumatic growth: rumin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신용찬 (2020). 외상 후 스트레스와 건설적인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Shin, Y. C. (2020). *An exploration of post-traumatic stress and constructive post-traumatic growth via latent profile analysis: Classification of latent class and influential factors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Kimhe, Korea.]
- 안현의, 이나빈, 주혜선 (2013a). 한국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K-CER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3), 1773-1794.
- [Ahn, H. U., Lee, N. B., & Joo, H. S. (2013a). Validation of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in a Korean popul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3), 1773-1794.]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원 (2013b).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Ahn, H. U., Joo, H. S., Min, J. W., & Sim, K. W. (2013b). Validation of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in a Korean popula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3(1), 149-172.]
- 우종필 (2014). 구조방정식 모델의 오해와 편견. 서울: 한나래 출판사.
- [Yu, J. P. (2014). *The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oul: Hannare Publishing.]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레,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4(3), 303-310.
- [Eun, H. J., Kwon, T. W., Lee, S. M., Kim, T. H., Choi, M. R., & Cho, S. J. (2005).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4(3), 303-310.]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Lee, S. J., & Lee, H. K. (1997).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The domai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1(1), 95-116.]
- 이시은 (2019). 한국 노인의 외로움 측정도구 개발. *한국간호학회*, 49(5), 643-654.
- [Lee, S. E. (2019). Development of the Korean geriatric loneliness scale(KG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5), 643-654.]
- 이양자, 정남운 (2008).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1-23.
- [Lee, Y. J., & Chung, N. W. (2008). A review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es: Focused on relation with adjustment and clinical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1), 1-23.]
- 이현정, 홍세희, 조기현 (2019).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진 심리검사에 대한 방법효과 검증. *교육방법연구*, 31(1), 147-168.
- [Lee, H. J., Hong, S. H., & Jo, K. H. (2019). An investigation of methods effects associated with positively and negatively worded items in self-report psychological Tes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1(1), 147-168.]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Lee, H. H., Kim, E. J., & Lee, M. K. (2003).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935-946.]
- 임선영 (2013). 역경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Im, S. Y. (2013). *The meaning reconstruction process leading to posttraumatic growth after relational loss of doctoral disser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차은석, 박미연, 김가애 (2008). 과체중 유. 무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체형인식, 신체활동정도, 정신건강, 건강생활행태.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8(4), 245-255.
- [Cha, E. S., Park, M. Y., & Kim, G. A. (2008). A comparison analysis of somatotype, physical activity, mental health, healthy behavior between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college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8(4), 245-255.]
- 최혜연, 민경환 (2003). 정서이해와 정서표현에 의한 대처 척도 보완과 정서-중심적 대처 하위 차원의 기능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05-118.
- [Choe, H. Y., & Min, G. H. (2003). Emotion-focused coping dimensions based on functional similarit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3), 105-118.]
- Antony, M. M., Bieling, P. J., Cox, B. J., Enns, M. W., & Swinson, R. P. (199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42-item and 21-item versions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in clinical groups and a community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10(2), 176.
- Barker, D., & Ebel, R. L. (1982). A comparison of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values of selected true-false item typ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7(1), 35-40.
- Baker, J. M., Kelly, C.,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08). An examination of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tic depreciation. *Journal of Loss and Trauma*, 13(5), 450-465.
- Barnette, J. J. (2000). Effects of stem and likert response option reversals on survey internal consistency: If you feel the need, there is a better alternative to using those negatively worded stem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0(3), 361-370.
- Benjet, C., Bromet, E., Karam, E. G., Kessler, R. C., McLaughlin, K. A., Ruscio, A. M., Shahly, V., Stein, D. J., Petukhova, M., Hill, E., Alonso, J., Atwoli, L., Bunting, B., Bruffaerts, R., Caldas-de-Almeida, J. M., Girolamo, G. de, Florescu, S., Gureje, O., Huang, Y., ... & Koenen, K. C. (2016). The epidemiology of traumatic event exposure worldwide: Results from the world mental health survey consortium. *Psychological Medicine*, 46(2), 327-343.
- Bentler, P. M., Jackson, D. N., & Messick, S. (1971). Identification of content and style: A two-dimensional interpretation of acqui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76(3), 186-204.
- Boals, A., Bedford, L. A., & Callahan, J. L. (2019). Perceptions of change after a trauma and

- perceived posttraumatic growth. *Behavioral Sciences*, 9(1), 10.
- Boals, A., & Schuler, K. L. (2018). Reducing reports of illusory posttraumatic growth: A revised version of the stress-related growth scale (SRGS-R).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0(2), 190-198.
- Brewin, C. R. (1997). Psychological defenses and the distortion of meaning. In M. Power & C. R. Brewin (Eds.), *The transformation of meaning in psychological therapies* (pp. 107-123). New York: Wiley.
- Brooks, M. (2018). *Rethinking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processes, outcom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between survivors of multiple types of adverse ev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lhoun, L. G., Cann, A., Tedeschi, R. G., & McMillan, J. (2000).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3), 521-527.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1), 93-102.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6).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An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 & 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pp. 3-2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 Coping*, 24(2), 137-156.
- Cohen, L. H., Hettler, T. R., & Pane, N. (1998). Assessment of posttraumatic growth. In R. G. Tedeschi, C. L. Park, & L. Calhoun (Eds.),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pp. 23-43). Mahwah, NJ: Erlbaum.
- Connor, K. M., & Davidson, J. 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 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Coyne, J. C., & Tennen, H. (2010). Positive psychology in cancer care: Bad science, exaggerated claims, and unproven medicine.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9(1), 16-2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kel, S., Ein-Dor, T., & Solomon, Z. (2012). Posttraumatic growth and posttraumatic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1), 94-101.
- DeVellis, R. F. (2003).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Fosha, D., Siegel, D. J., & Solomon, M. F. (2013). *감정의 치유력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노경선, 김건중 역). 서울: NUN(원전은 2009에 출판).
- Frazier, P., Tennen, H., Gavian, M., Park, C., Tomich, P., & Tashiro, T. (2009). Does self-reported posttraumatic growth reflect genuine positive

- change? *Psychological Science*, 20(7), 912-91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oldberg, D. P., & Hillier, V. F. (1979).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9(1), 139-145.
- Greenberg, L. S., & Paivio, S. C. (2008). 심리치료에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Working with Emotion in Psychotherapy*]. (이홍표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7에 출판).
- Gu, H., Wen, Z., & Fan, X. (2015). The impact of wording effect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re Self-Evaluation Scale (CSES): A bi-factor perspect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42-147.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ayton, J., Allen, D., & Scarpello, V. (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utorial o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2), 191-205.
- Helgeson, V. S., Reynolds, K. A., & Tomich, P. L. (2006). A meta-analytic review of benefit finding and grow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5), 797.
- Heppner, P. P., Wampold, B. E., Owen, J., Thompson, M. N., & Wang, K. T. (2017). 상담연구방법론[*Research Design in Counseling, 4th Edition*]. (이동귀, 박현주, 김동민, 박성현, 서영석, 이동훈, 이희경 역). 서울: Cengage Learning(원전은 2017에 출판).
- Horowitz, M.,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 Howells, K., & Fletcher, D. (2016). Adversarial growth in olympic swimmers: constructive reality or illusory self-decep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8(2), 173-186.
-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141-151.
- Lechner, S. C., & Antoni, M. H. (2004). Posttraumatic growth and groupbased interventions for persons dealing with cancer: What have we learned so far? *Psychological Inquiry*, 15(1), 35-40.
- Li, T., Wang, S. W., Zhou, J. J., Ren, Q. Z., & Gao, Y. L. (201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stress related growth scale: Short form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ing & Health Sciences*, 20(4), 509-515.
- Lovibond, P. F., & Lovibond, S. H. (1995). The structure of negative emotional states: Comparison of the depression anxiety stress scales (DASS) with the Beck depression and anxiety invento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3), 335-343.
- MacCallum, R., Widaman, K.,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99.
-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1), 41-48.
- McFarland, C., & Alvaro, C. (2000). The impact of motivation on temporal comparisons: Coping with traumatic events by perceiving personal growth.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27-343.
- Michl, L. C., McLaughlin, K. A., Shepherd, K., & Nolen-Hoeksema, S. (2013). Rumination as a mechanism linking stressful life events to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Longitudinal evidence in early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2), 339-352.
- Mittelmark, M. B., Sagy, S., Eriksson, M., Bauer, G. F., Pelikan, J. M., Lindström, B., & Espnes, G. A. (2017). *The handbook of salutogenesis*. Springer.
- Orille, A., Harrison, L., & Taku, K. (2019).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perceptions toward posttraumatic growth and illusory grow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2, 153-158.
- Park, C. L., Cohen, L. H., & Murch, R. L. (1996).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stress related growth. *Journal of Personality*, 64(1), 71-105.
- Pat-Horenczyk, R., Perry, S., Hamama Raz, Y., Ziv, Y., Schramm Yavin, S., & Stemmer, S. M. (2015).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survivors: Constructive and illusory aspec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8(3), 214-222.
- Richardson, G. E. (2002). The metatheory of resilience and resilie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307-321.
- Roesch, S. C., Rowley, A. A., & Vaughn, A. A. (2004). On the dimensionality of the stress-related growth scale: One, three, or seven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3), 281-290.
- Roszkowski, M. J., & Soven, M. (2010). Shifting gears: Consequences of including two negatively worded items in the middle of a positively worded questionnaire.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35(1), 113-130.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riesheim, C. A., & Hill, K. D. (1981). Controlling acquiescence response bias by item reversals: The effect on questionnaire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4), 1101-1114.
- Shakespeare-Finch, J., & Lurie-Beck, J. (2014). A meta-analytic cla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distress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8(2), 223-229.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Principal components and factor analysis (4th ed.)*. Boston: Allyn & Bacon.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Cann, A., Taku, K., Senol-Durak, E., & Calhoun, L. G. (2017).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A revision integrating existential and spiritual chang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0(1), 11-18.

- Van Sonderen, E., Sanderman, R., & Coyne, J. C. (2013). Ineffectiveness of reverse wording of questionnaire items: Let's learn from cows in the rain. *PLOS ONE*, 8(9), e6896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68967>.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ebber, J. M., Kitzinger, R., Runte, J. K., Smith, C. M., & Mascari, B. J. (2017). Traumatology trends: A content analysis of three counseling journals from 1994 to 2014.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5(3), 249-259.
- Weiss, D. M.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N J. P. Wilson & T. M. Keanne (Eds.),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pp. 399-411). New York: Guilford Press.
- Zoellner, T., & Maercker, A. (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5), 626-653.

원고 접수일 : 2021. 02. 17.
수정원고 접수일 : 2021. 05. 27.
게재 결정일 : 2021. 05. 28.

Validation of the Stress Related Growth Scale Revised Korean Version: Illusory Growth and Constructive Growth

Yongchan Shin¹ · Youngkeun Kim²

¹Master's Degree, Departe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Gimhae, Republic of Korea

²Associate Professor, Departe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 Gimhae,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ress Related Growth Scale Revised Korean version (SRGS-R-K) that was modified version (Boals & Schuler, 2018) of the original Stress Related Growth Scale. We compared to verify whether SRGS-R reports less illusory growth with the most commonly used measure of posttraumatic growth scal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53 (pilot study) and 523(main study) adults in Korea. A two factor structure of 13 items was confirmed as the final model. SRGS-R-K reported relatively lower levels of PTG (13.6%) th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expanded (PTGI-X, 52.8%) and SRGS (50.7%). Also We found scores of Posttraumatic stress and SRGS-R-K negative response scale score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A correlations analysis revealed SRGS-R-K, PTGI-X, SRGS produced acceptable convergent validity. but The SRGS-R-K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nxiety, other-blame and catastrophizing. It was found that SRGS-R-K was qualitatively different measure with SRGS and PTGI and SRGS, PTGI encourage participants to overreport of growth.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SRGS-R-K the effect of illusory growth and measures constructive post-traumatic growth more appropriately than SRGS and PTGI.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ulti-dimensional aspects of post-traumatic growth for follow-up studi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measurement of constructive post-traumatic growth.

Key words : *posttraumatic growth, illusory growth, constructive growth, scale validation, SRGS-R-K*